

사업 현황자료

□ 결핵관리사업 민간공공협의회

결핵환자의 90%이상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실정이라 결핵관리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이 협력할 필요가 있어 구성하였으며, 전국 21개 권역으로 편성되어있고, 서울은 4개의 세부권역(남동, 남서, 북동, 북서)으로 편성되어있음

□ 서울북동권역

서울 4개의 세부권역 중 하나이며, 8개 자치구(강북, 광진, 노원, 동대문, 도봉, 성동, 성북, 중랑)와 11개 민간의료기관(건국대병원, 고려대안암병원, 인제대상계백병원, 을지병원, 삼육서울병원, 한양대학교병원, 서울의료원, 성바오로병원, 한전병원, 원자력병원, 경희의료원)으로 구성

□ 권역의 운영 및 방법

분기별 권역회의를 통해 민간의료기관과 자치구가 협력하여 결핵사업 활성화 방안 등 효율적인 환자관리, 비순응환자관리, 민간공공협력 미참여 의료기관 환자관리에 관하여 토의 및 결핵관리의 전문화를 위한 최신 지견 강의 등으로 운영

□ 포스터 내용

서울북동권역소개, 권역회의 운영내용, 2014년도 상반기 권역의 결핵관리 현황, 비순응환자 관리현황, 사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, 비순응환자 관리사례로 구성